

원재료 물가 두달 연속 폭등

3월 52% 이어 4월 56% ↑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 ‘비상’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로 인해 원재료 물가가 두달 연속 50%대의 폭등세를 이어갔다.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원재료 물가는 시차를 두고 최종재의 물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재료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6.0%나 급등했다.

이는 1998년 1월의 57.6%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월에 45.1%, 2월 45.0%, 3월의 52.4%에 이어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한은은 “원유와 동광석, 고철 등 수입

물들이 크게 오른데다 돼지고기와 갑자 등 농립수산품도 소폭 상승해 원재료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금속1차제품 등 중간재의 작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8.8%를 나타내 지난 98년 10월의 2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화부문의 종합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인 최종재는 작년 동월에 비해 5.2% 상승했는데 이 역시 지난 98년 12월의 6.3% 이후 가장 높았다.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를 합친 가공단계별 물가의 총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9.5% 상승해 98년 7월의 20.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두바이유의 4월 현물가격 평균이 배럴당 103.6달러였으나 5월 들어서는 20일 현재까지 115.7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5월의 원재료를 포함한 가공단계별 물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은행, 올 중소기업 대출 축소될 듯

‘신 바젤협약’ 시행…비우량 회사채 시장 활성화 시급

올해부터 신 바젤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비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비우량 회사채시장 위축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신 바젤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는 기업체권의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돼 은행들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바젤협약 이전에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100%로 적용했지만, 이후에는 기업체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신용등급에 따라 20~150%까지 세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상당부분이 해당

하는 신용등급 BB-미만 기업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50%로 상승하게 돼 은행들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바젤협약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2006년 말 188조엔에서 지난해 말 186조엔으로 감소했고, 대출증가율도 4.6%에서 -1.1%로 하락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경색 등 부작용을

▲신바젤협약(바젤 II)=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988년부터 적용해 오던 ‘바젤 I’를 대체한 것으로, 신자기자본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은 동일한 기업대출 도 거래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우량 회사채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같이 비우량 회사채시장이 위축된 이유로 회사채 발행과 수요의 전반적인 축소, 은행대출에 비해 낮은 경쟁력, 시장인프리의 미비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올 광주·전남 인구 유출 줄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 여파
지난해 동기보다 2천명 감소

이같은 상황은 광주·전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올 1·4분기에 광주·전남에서 타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17만9천명에 달했다.

반면 광주·전남으로 들어온 인구는 17만4천명에 그쳐 결과적으로 5천명의 인구가 타 시·도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 인구유출 규모(7천명)에 비해 2천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광주 동구의 경우 재개발사업 관련 전출자가 잇따르면서 올 1·4분기 인구 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52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에도 3.2%(8만3천명) 감소한 것으로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인구 이동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경기의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2만1천명 많았으며, ▲인천(6천명) ▲충남(5천명) ▲충북(1천명) ▲울산(1천명) 등으로의 인구 이동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상장사 1천원 팔아 79원 남겼다

1·4분기 수익성 개선 추세

상장사들이 1·4분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불안 등 대외여�재를 딛고 뚜렷한 수익성 개선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61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 비교 가능한 580개사의 1·4분기 매출액은 총 209조7천81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20.83%, 영업이익은 18조3천1억 원으로 12.94% 증가했다.

금융업체를 제외한 568개 제조 및 서비스업체의 매출액은 189조410억 원으로 18.43% 늘었고 영업이익은 14조9천145억 원으로 36.50% 증가했다.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은 1천원이상 상품을 팔아 79원의 영업이익을 벌어 69원을 남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원화약세 영향으로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기전자제품의 영업이익이 115.0% 급증한 것을 비롯해 종이·목재(94.19%), 운수장비(87.60%), 철강·금속(26.65%) 등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자산총액 기준 10대그룹 63개사 계열사는 1·4분기 매출액이 95조2천726억 원으로 17.24%, 영업이익은 8조5천953억 원으로 84.39%, 순이익은 2조50억 원으로 43.08% 각각 늘었다.

LG그룹의 순이익이 6천726.73% 급증한 것을 비롯해 삼성그룹(29.62%)과 현대중공업그룹(24.43%), 현대차그룹(19.46%), 롯데그룹(3.70%), 한화그룹(0.45%) 등이 이익이 늘었다. 반면 한진그룹이 적자전환한 것을 비롯해 금호아시아나그룹(-88.93%), SK그룹(-11.19%) 등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주유소서 영화예고편 다운 받으세요

SK에너지는 20일부터 전국 3천700개 SK주유소에서 ‘디지털 허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해 SK주유소에서 영화예고편, 동화, UCC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전남대학교 자동화시스템	[국비무료] 08년 이공계 현장연수사업 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1	062-530-0450
화인피엔씨(주)	경리 및 종무업무 담당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21	062-951-3751
현-데코	도면제작 사원(CAD/MAX)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21	062-576-1751
월드ING	프레스 금형 설계 경력자	고졸/경력5년	3000~3200	05/22	062-945-8798
(주)한진기공	2008년 기계설계직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5/23	062-953-1642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계약제 기술직 사무직원 공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3	062-970-0023
(주)세진틸리콤	sk증계기 설치현장 관리	초대졸/경력5년	2800~3000	05/23	062-576-8888
김동물 찾는 사람들	국내/해외 여행사전반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3	062-376-7666
현대호주증공업	2008년 전역장교 공개	대졸/경력무관	4000~5000	05/23	061-460-3536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광주공장] 반도체 제조직(부)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24	062-970-8212
한국인스파(주)	제품 출하 및 원·부자재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24	061-371-3000
동양방영(주) 본사	[TM1위] 고객상담원 250명(월평균430,주5일,TV방송증)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5/26	02-518-2769
(주)선성정보	광주 정부전산통합센터 / 서버(UNIX SE) 운영요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28	02-517-7800
(주)한디엔씨	도로설계 기능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384-845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재건축 사업 최대 걸림돌은 분양가 상한제”

주거환경연구원 설문조사

강화, 재건축 후분양제, 입주권 양도세 강화, 소형주택의 의무비율 강화 등의 순이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4.30점)를 뽑은 사람의 가장 많았고, 이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절차,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주거환경연구원은 최근 교육부, 공무원, 부동산 관련 회사 등 전문가 170명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80명 등 총 2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건축 조합의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크게 하는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5점 만점에 평균 4.36점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번째 규제는 4.33점을 얻은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됐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재건축 절차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비싼 한국 주요 품목 비교해 보니

그린피 2.3배 스타벅스 커피 1.8배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을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판매가격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리·하이네켄·버드와이저 등 캔맥주는 1.8배, 오렌지주스 가격도 1.5배 가량 비쌌고, 골프장 그린피는 외국 평균의 2.3배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G-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및 아시아 주요국(대만·싱가포르·중국·홍콩)을 대상으로 스낵·커피·주스·맥주·서적·화장품·골프장 그린피 등 7개 품목에 대한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구매력지수는 국가간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각국 통화구매력을 동일하게 해주는 통화비율로, 이번 조사에서 평균환율은 1천3원, 구매력지수 환율은 749원이 각각 적용됐다.

조사결과 구매력지수를 사용해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7개 품목 모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

